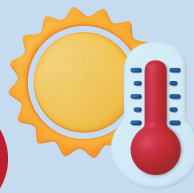


건설현장 열사병 예방 및 대응 가이드



열사병의 핵심 증상인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uick Message 건설현장은 옥외작업 특성 상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온열질환 중 열사병은 열탈진(일사병)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르며,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열사병이란? 체온을 조절하는 뇌속의 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물, 그늘, 휴식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즉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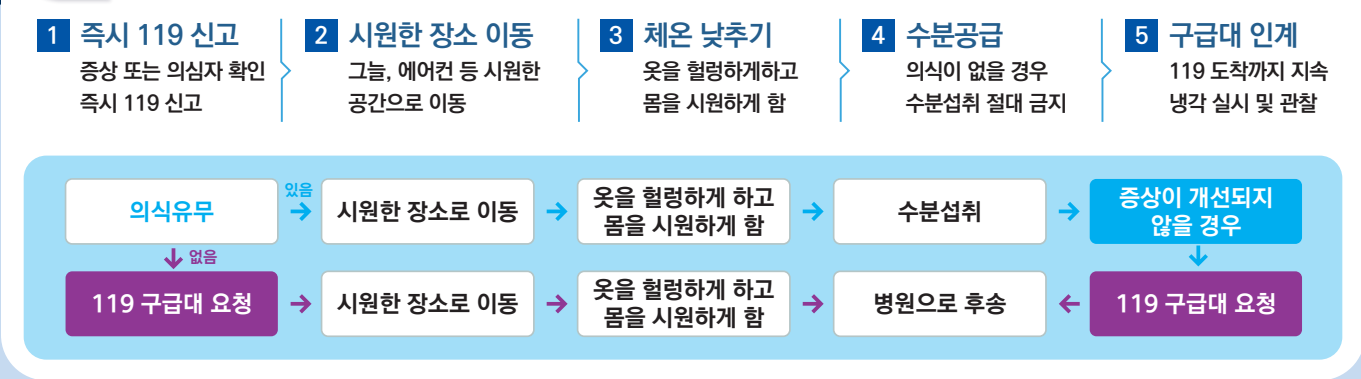
열사병	열탈진(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체온조절 기능 장애 (중추신경 이상) 증상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수분과 염분 손실로 발생 증상 땀을 많이 흘림, 탈수증상, 창백함, 근육경련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 증상 어지럼증, 실신	근육에 일시적인 경련 증상 근육 경련

열사병 vs 열탈진(일사병) 증상 차이	열사병	열탈진(일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 40도 이상 ✓ 뇌속 중추신경계 이상, 의식저하 등 ✓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특징 ✓ 신속한 의료 조치 필요 즉시 119 신고 후 물, 그늘, 휴식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 37~40도 ✓ 어지러움, 구토, 두통, 피로 등 ✓ 땀이 많이 남, 창백함, 근육경련 ✓ 물, 그늘, 휴식으로 증상 개선 가능 증상 미개선 시 119 신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물**: Water bottle and glass icon.
- 냉방장치**: Air conditioning unit and tent icon.
- 휴식**: Worker sitting in a chair icon.
- 보냉장구**: Cooling vest icon.
- 119신고**: Ambulance icon.

열사병(의심자) 발생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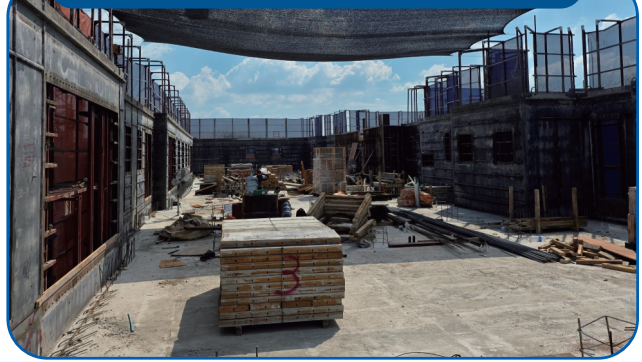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조치 사례 예시

무더위 쉼터 및 체감온도 측정계 설치



옥외작업장 임시 그늘막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옥외작업자 보냉장구(냉각조끼 등) 지급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예시

현장명 : OO공동주택 건설공사

온습도계 위치 : 지하주차장 슬라브 상판

작성일	구분	측정시간	측정자	온도(°C)	습도(%)	체감온도(°C)	조치사항
2026-07-00	오전	7:00	000	26.1	58	26.5	-
		9:00	000	29.8	60	30.4	-
	오후	14:00	□□□	32.4	58	32.4	추가 휴식시간 부여
		16:00	□□□	34.8	60	35.5	당일 옥외작업 종료



폭염 시 옥외 작업시간 조정 예시

공종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기/설비	
	거푸집(알폼)	철근	건축(벽작업)	콘크리트 타설	전기 배관	설비 배관
작업시작	6:00 (조기출근)	6:00 (조기출근)	5:30 (조기출근)	8:00	6:00 (조기출근)	6:00 (조기출근)
작업종료	12:00	12:00	10:00	16:00	12:00	12:00
비고	매 시간당 15분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명씩 교대 작업 • 냉각조끼 지급 		

※ 상기 사례는 예시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규칙 제558조~제559조 등)」,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따라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